

인천항에 밀린 광양항 '투포트 위상' 흔들

부산항에 이어 전국 2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였던 광양항이 지난해 11월 인천항에 처음으로 추월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과의 FTA 타결 등에 의해 대중국 무역이 늘어나고 수도권·충청권이라는 물류 거점을 지닌 인천항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장 1600m의 인천신항의 6선석이 본격운영되는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러한 구도가 고착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11월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11월 현재 214만2000TEU(6.1m 길이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로 전남도에 비해 3.9% 증가한 데 그쳤다. 반면 인천항은 214만4000TEU로 무려 8.9% 증가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697만 7000TEU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광양항만 정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12년만해도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15만4000TEU로, 인천(198만2000TEU)에 비해 크게 앞서 있었으나, 2013년 광양은 227만6000TEU, 인천은 216만TEU로 격차가 줄었다.

일반 화물보다 수익률이 높은 컨테이너 물동량은

FTA 타결 對中 교역량 증가

작년 11월 컨테이너 물동량 역전

철강·석유화학 주력산업 쇠락

배후단지 미래산업 기반 구축 시급

항만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이번 인천항의 추월은 부산항과 함께 '투포트'로 자리했던 광양항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광양항은 14선석에 460만TEU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후부지 인근 산업시설 부족으로 인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인천항은 수요가 급속히 늘면서 신규 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화물까지 포함한 전체 물동량에서는 광양항이 지난해 2억4100만t으로, 부산항(3억2400만t)에 이어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은 1억4600만t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자립형 항만 기준인 물동량 300만TEU

달성을 위해 해외 마케팅 및 배후부지 내 고부가가치 창출산업 육성 등에 나설 방침이지만, 그나마 전남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이 쇠락 기미를 보이면서 고민에 휩싸여 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전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경도 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양항의 배후단지에 해당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 지원액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작아 새로운 산업기반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정부 지원액은 부산·진해자유구역청의 3분의 1 수준인 1189억원에 불과하고, 기반시설 지원액도 1180억원으로, 부산·진해(3158억원), 인천(2323억원)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전남도가 정부에 투포트 정책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동시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탄소소재산업, 지식 융·복합산업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2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였던 광양항이 지난해 11월 인천항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여수광양항만청사에서 바라본 광양컨테이너 부두. /김진수기자 jeans@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새해 새설계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확실한 성과 내겠다”

“지역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적 자원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장년 실업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흥석(70)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11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상의의 목표는 광주를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목표를 ‘회원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경제단체’로 정했다”며 “광주상의의 위상도 과거와 달리 높아진 만큼, 기업 유치 및 일자리 늘리기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회원기업 애로 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 강화 ▲국제교류 활동 강화 및 회원기업 국제업무 지원 ▲정부·지자체 수입사업 확대 및 내실화 등을 꼽았다.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구성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U대회·문화전당 개관 등

광주·전남 도약 기회 만들어야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상의가 주도적으로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인력양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광주상의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안정화 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지역경제계의 대표 역할을 해내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박 회장은 “과거 산업 규모가 작았던 탓에 광주상의는 전국 상의 가운데 뒷자리를 차지했으나 가야차 등 지역 산업이 성장하고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위해 발로 뛰는 광주상의의 모습도 지역 경제계를 넘어 대한상의 안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상의는 박 회장의 취임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안에서도 '격'이 탈리진 대우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박 회장은 현재도 정부와 지역을 잇는 '확실한 끈'으로 인정받으며 지역 상의 회장 가운데 리더 역할

을 자임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 '손톱 밑 가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나오자 88건에 이르는 애로 사항을 건의해 이중 38건이나 개선되는 성과도 올렸다. 여기에 취임 이후 각종 사업 수입으로 광주상의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 데도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회장은 “취임 당시 정부 및 지자체의 수입사업이 전무했는데, 올해에만 22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수입받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해에는 지역 기업들을 직접 찾아, 회원 유치에 노력한 결과, 올해 192개의 신규 가입회원을 영입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굵직한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이를 광주·전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남겼다.

그는 “지역 성장 및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호재가 많다”며 “올해를 '광주·전남 지역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고 지역민 모두 애정을 쏟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정비하고 활용하며 창조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을 합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해남 출신으로 럭기산업 대표이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 2명 압축 28명 서류 심사·면접 추천...이낙연 지사 주내 선임

이낙연 전남지사가 이번주내로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 산하 유일한 공기업이면서 최근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리 문제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어 새로운 수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11일 “공모에 접수한 28명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양모씨와 정모씨를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12일 추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들 2명 가운데 적임자로 판단

되는 1명을 전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지난 9일 전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면접에서 양씨는 리더십과 경영혁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700점 만점에 645점, 정씨는 전문성과 기본자질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618점을 받았다. 면접 평가는 5개 분야 20개 항목에 걸쳐 임원추천위원 7명이 부과한 100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양씨는 이 지사의 전 중소기업특별보, 민선 6기 이낙연 전남지사 직무 인수위원회 정책고문이었으며,

정씨는 모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임원을 거쳤다. 전남도 관계자는 “추천된 2명이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는 만큼 현재 전남개발공사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전남도지사 추천 2명, 전남도의회 추천 3명, 전남개발공사 이사회 추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일 지원자 28명 중 면접전형 대상자 6명을 선발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